

조계사 복합문화공간 만든다

인사동 연결 지하도 등 250억 규모 불사 계획



조계사 중창불사 기본계획 조감도. 대웅전을 제외하고 전체가 새롭게 중창된다.

조계사(주지 원담)가 일반시민들의 신행·교육·수행의 공간 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현재 진행 중인 대웅전 보수공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일주문과 만불보전, 보제루, 문화사입관 신축 등 2008년까지 250억 규모의 중창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계사와 인사동을 잇는 지하도 건설을 통해 경복궁과 인사동 등 인근지역을 문화벨트로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일반시민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조계사로 이끌 방침이다.

조계사는 11월 1일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다양한 교육 및 신행, 문화의 공간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불교문화의 틀을 제시하기 위해 총 4단계에 걸친 중창불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지난 2002년부터 진행 중인 대웅전 보수공사 마무리 작업이며, 2단계는 조계사의 틀을 다지는 작업으로 12월 중 일주문 불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보제루 및 문화사입관을 건립하게 된다. 일주문은 정면 3칸 규모로 세워지며,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될 보제루는 정면 7칸, 측면 3칸,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또한 지하 3층, 지상 5층 건평 897평 규모의 문화사입관을 설립, 시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3단계는 극락전과 종각, 조계사와 인사동을 잇는 지하도 및 주차장과 지하식당, 신도회관 등을 건립 혹은 리모델링하는 작업이다. 현재 대웅전 후측에 위치한 극락전은 해체 복원해 법회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종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 2층

규모로 재정비해 신행공간과 각종 문화행사시 야외무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 1층 건평 500여평 규모의 지하도 건설은 경복궁과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을 조계사로 끌어들이 상당한 포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사 중창불사는 4단계 만불보전 및 해탈문 건립으로 마무리 된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그동안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상징이자 총본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격(寺格)에 걸맞는 도량정비를 해오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중창 불사를 통해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회당학원 이사장 18일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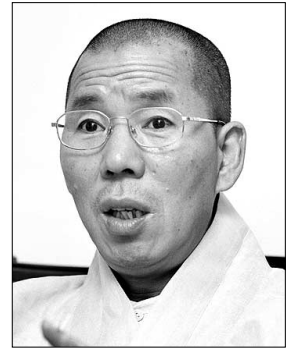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진당)은 11월 18일 오후 1시 법인회의실에서 제329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19대 이사장을 새로 선출한다. 현 이사장 진당 정사의 임기가 오는 12월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진각종 통리원장을 지낸 성조 정사와 중앙종회 의장 진산 정사가 허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병용 기자

종단안정·충실한 종회기능 모색

인터뷰 조계종 13대 후반기 종회의장 법등 스님



분과위 활성화로 토론·협의의 기구돼야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중앙종회의 권한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중앙종회에 권력이나 힘이 부여된 것은 누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나 자신부터 주어진 책무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반성하게 된다. 다만 현 제도가 꼭 불합리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종단 개혁 10년 맞아 향후 중

회 운영에 대한 각오는?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다소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제도나 의식이 개선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종현종법을 보면 사회법 그대로 인용한 경향이 있다.

여러 스님들이 종단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우리 것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여러분들을 종합하면 승가다운 법체계가 나올 것이다.

▲전반기 아쉬웠던 점과 개선점은?

-전 의장 지하 스님이 오랜 경험으로 종단 안정에 기여한 점이 크다. 이러한 점을 후반기에도 이어받아 종회를 운영할 것이다. 전반기 종회 가운데 분회의 중심이 아닌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역할이 활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즉흥적인 인건 상정보다는 해당 분과위 차원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분회에 상정되도록 정착시킬 것이다.

남동우 기자

사찰체험·산업체 견학

중 청년지도자 수교12주년 기념 방한

한중수교 12주년을 맞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주재, 파라마타청 소년련회(총재 도영)와 내원청소년단(이사장 정현) 공동주관으로 중국 청년지도자 방한단(단장 탄홍지)이 9박10일 일정으로 11월 1일 방한했다.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환영 만찬회는 한국 측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포교원장 도영 스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연기영 교불련 회장과 중국 측에서 주치양 중국공청단 제1 서기, 리빈 중국대사, 장광평

국제연락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환영만찬회에서 법장 스님은 "이번 중국청년지도자 초청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중의 협력증진관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중국 청년지도자 방한단은 3일 에버랜드 방문을 시작으로 해인사, 불국사 석굴암 봉은사 등 사찰체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산업체 견학, 부산 인천 서울 투어, 한국 전통문화 체험, 홈스테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1월 10일 출국한다.

김지연 기자

불교 자원봉사, 타종교 비해 저조

복지부 2003 사회복지 통계

많은 개선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교 자원봉사활동은 여전히 타종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에 비해서도 자원봉사자 증가율은 개신교와 가톨릭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가 발표한 '200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144,623명의 자원봉사자 중 불교신자는 29.1% (95,68명)로 개신교 42.2% (13,862명)보다 크게 적은 수치였다. 또한 전년에 비해 2003년 불교 자원봉사자는 4,000여명 증가한 반면, 개

신교와 가톨릭은 각각 5,500여 명, 4,600여 명의 증가, 자원봉사자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봉사자 1인당 한해 평균봉사시간은 불교가 36.8시간으로 개신교 28시간, 가톨릭 33.1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3 사회복지 자원봉사 통계연보'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1,585개소 중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센티브로 지정되어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김은경 기자



10월 30일 열린 '우리함께' 회관 개원식에서 축하 떡을 썰고 있는 참석자들과.

NGO 보금자리 우리함께 회관 문열어

제가 불교운동의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이하 재가연대)와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웅)는 10월 30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우리함께' 회관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우리함께' 회관 개원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천태종 총무

원장 운덕 스님, 김중서 재가연대 고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두 단체의 발전을 기원했다.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에 걸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성태웅 우리는선우 이사장은 "회관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

들과 함께 뜻을 잇는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준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 후 참석자들은 '우리함께 회관' 현판식을 봉행하고 지하 1층에 마련된 잔치마당에 참석했다.

이 회관에는 청소년문화센터, 불교인력개발본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국제참여불교정보센터, 종교사회화센터, 경영정보교육센터, 생활수행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재가연대와 우리는선우는 그동안 각각 사무실을 임대 사용해왔다.

강유신 기자

오대산 월정사 포교원 법종사

업장소멸과 영가천도를 위한 금강경 탐다라니 사경 및 천도재 동안거 백일기도

귀의삼보하옵고
법종사에서는 금강경 탐 다라니 사경과 함께 동안거 백일기도 내에 불자님들께서 직접 사경한 탐다라니를, 불단에 모시고 영가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사리나 경전을 봉안하여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의 모양으로 금강경을 사경할 수 있게 하여 한자 한자 써 나감으로써 부처님의 탑을 완성해 나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 사경수행에 지루함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먼곳에 있어 자주 못 오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사경수행 할 수 있으니 많은 동참으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합니다.

● 크기 : 가로 75Cm × 세로 208Cm

- 천도재 동안거 백일기도
 - 입재 : 불기 2548년 11월 16일(음, 10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 ※ 법종사 회주 현해 큰스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 초재 : 불기 2548년 11월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 2재 : 불기 2548년 12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
 - 3재 : 불기 2548년 12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 4재 : 불기 2549년 1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
 - 5재 : 불기 2549년 1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 6재 : 불기 2549년 2월 6일 일요일 오전 10시
 - 회향 및 천도재 막재 : 불기 2549년 2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현해 큰스님 법문)
 - ※ 동참금 : 위패 1위당 1만원
- 금강경 강의
 - 일정 : 불기 2548년 11월 21일부터 매주 일요일
 - 장소 : 법종사 4층 천불전
 - 시간 : 오후 1시
- 금강경 탐다라니 사경지도
 - 일정 : 불기 2548년 11월 16일부터 매일
 - 장소 : 4층 천불전 오후 2시 ~ 오후 4시
- 금강경 탐다라니 사경 및 백일기도 동참금 : 십만원(탐다라니 사경 3장 포함)
- 접수 및 문의
 - 법종사 총무소 : 02)905-6666, 905-6777 / 팩스 02)902-6777
 - 온라인계좌번호 : 국민은행 081301-01-000799 (예금주 : 성찬회)
- 미리 접수 바라고 대공중앙(떡, 꽃 과일) 하실 분은 총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상원역 2번 출구 하차, 마을버스(1121번, 5번) 법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성찬회 오대산 월정사 포교원 법종사